

崇德殿通史

序

우리 역사에 가장 오랜 것은 正史로 金富軾의 三國
史記가 있고 野史로 僧一然의 三國遺事가 있다. 이
書名들이 表示한 바와 같이 三國은 中心으로
記錄한 것은 我國의 三國時代에 이르러서야 되고
傳說의 時代를 떠나 史實의 時代에 들어갔다는
것을 證明하는 것이다. 그以前은 原始狀態의 部族
社會로서 他部族들과의 勢力均衡으로 恒常動搖
外移散을 거듭하다가 이 時代에 이르러서 漸次로

一定한地域에定着하는同時에內紛과外侵을막
기爲한大集團을構成하게된것이다.바로三國의發
호인것이다.여기서五,二建國의先後가있었으니
新羅始祖 朴赫居世居西干의六部의推戴를받
아王位에오르신것이다.西曆紀元前五十七年의오
高句麗의東明聖王이率本扶餘의桓仁에서部族
國家를建設한것이다.그二十年後인全三十七年의
오, 곧바로百濟溫祚王이流移民을타고河南慰
禮城의都邑을鼎定한것이다.그三十九年後인全十
八年의엿다,그리하여百濟之外勢에對하여都邑

을轉々하다가三十一代六百七十八年만에문지
滅亡한바되고高句麗는二十八代七百五年間大
陸에서의紛争의歷史를남기고서漸次한데反하
여第一은列建國의新羅에서은團合된民心과鞏固
한國力으로三國統一의聖業을完遂한뒤에然으
로는九州五京의行政體系外骨品官等의諸般法
制을完備하고然으로서隣國과의外交政策을遂
行한바에서盛唐文物을移入하여特殊한文化를長
養하여國家의體額外政治의體制外整備되고倍
進民族의統一意識과文物制度의近代樣相이이

로 소태동되었다. 그리하여五六代九百九十二
年間徐那伐의 한 자리에서韓半島의 統治權을 掌
握하고 政治史上 最長의 繁榮과 文化史上 空前의
黃金時代를 이룩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우리 歷史
는 古代와 中世에서 많은 難散과 錯亂이 있었으나,
이것을 總集結하여 體系를 이루는 것이 바로 新
羅의 創業이고 高麗이다. 다시 後三國을 再統一하여
그 뒤를 繼承하였고 李氏朝鮮을 거쳐서 現代에 이
른 것이 우리 歷史의 正統이라 할 것이다. 이 歷史의
創業主는 天降의 神人인 聖德이 隆崇하신 우리

始祖王 朴赫居世居平干이시다 始祖王은寶
令十三에各部族長들의推戴를받이寶座에오르
시니神威가國內에光被하고衆庶가父母다르듯
追從하였다以德保民과光明理世를達國理念으로
모시고萬民을統治하시니關莫王妃가神德으로
王業을內助하시니治業이日盛하시니時人이二聖
治世라고讚仰하였다그遺德으로後孫이相傳하
여千年鴻業을成就하였으니우리始祖王의聖德
이外에달로日月과더부러昭明하고天地의가치無
窮하도다後世에이나과王位에오르는者누구가

그德을景慕치 아니하며 이 나라民族된者 누구가
그恩에感泣하지 아니하리오. 여기서國家에서는
廟宇를세워서 그尊靈을崇奉하고國民들은香火
를반드러서累千載에連綿不絶하며今日에이르
렀다. 그廟宇를羅代麗代에서는奈乙神宮이라할
거렸고李朝以後는崇德殿이라불러왔다.古昔부
터國土의安泰를爲하여社稷을두고國家의隆盛
을爲하여宗廟를두듯이國民의繁榮을爲하여이
崇德殿을두는것은當然한道理라. 할것이다. 그러
므로이崇德殿은決코朴民姓孫들의私廟가아니

한것을, 이기치, 세로, 認識하게 할것이다. 모든儒生
이 孔子의 大成殿을 奉享하고, 모든 佛徒가 釋迦의
大雄殿을 守護하고, 모든 仙者가 玉皇의 長生殿을
欽仰하듯이, 모든 國民이, 이 崇德殿을 崇奉한다. 만
感恩報本의 德性涵養이, 이에서, 더할수, 없을것이
다. 더구나 現代는 西歐의 物質文明이, 우리 東方에
는 不合한데도, 各理하게 流入되어, 古來美風이, 전
網常의 鉄柱가, 부러지고 道義의 石塔이, 무너지고
義理의 橋梁이, 더러지고 廉恥의 礎石이, 부서져서
社舊衝突의 一大混亂을 惹起하고, 있는것은 人間

末世의氣運으로서眞實로痛嘆하시니
이다. 이같은 우리崇德殿에
의自古로殿誌가있어
歷代帝王의敎勅과後世子孫의致誠을昭詳히蒐
集하시殿內에恒時秘藏하시
았으나叙上의趣意
外時運의要請에副應하고
지. 이번이 이것을萬民
敎養의典籍으로世間에廣頒하
노니光明理世의
建國理念이燦然히
다시世上에闡明되고
以德保
民의崇德精神이確乎히國民
에게明識되기를祈
祝하시니
이序文을적하시니
다 新羅紀元二千

二十一年甲辰甲月上浣 朴寬洙謹識

小識

誌云卽史也殿之有誌也猶國之有史也卽史如無
傳則千年往事焉安得以徵之乎外恭惟我 崇德
殿之 新羅始祖王聖靈奉安之廟宮而越昔漢陽
朝莊憲王之所創建者也卽而後殿之歷年間崇奉
記事是謂之殿誌也誌云有崇德殿致往錄卽有潮
源錄卽有朴氏史譜卽有增修潮源錄卽有崇德殿
誌而皆歷代相繼相修者也卽史之為貴也在于未
事續修而若時而失之則將未免杞宋之憂矣卽而
來數十年間則殿之可誌之事蹟也甚不小卽時又

時矣而諸宗之喻囑引亦大矣斗茲救忘陋斗乃屬
志於修事而主據羅史斗採取前誌斗拔萃散錄斗
新添時事斗編成一帛而名之曰崇德殿通史斗
後既訖引諸宗引又囑余而識其顛末斗以為後致
之資斗王亦不敢辭斗遂書之於右耳斗歲中辰四
月上斗澣斗朴華準謹撰